

# 황룡강에 번쩍 테마파크에 번쩍 길동이와 함께 봄 즐기세요

장성 홍길동 축제 22~30일

황룡강변 노란 유채꽃 보고 홍길동 테마파크서 체험  
옐로우콘서트·가든음악회·매직공연 등 볼거리 풍성  
전동열차 운행...시화전·타일아트·야생화 등 전시회도



유두석 군수

조상들은 장성(長城)하면 선비들이 문학을 숭상하는 고장(동국여지서·東國輿地誌)이라 했고, 민심이 순박하고 근검하다(여지도서·輿地圖書)고 했다. 조선시대엔 '생거장성(生居長城)'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정평이 자자했다.

요즘 젊은층들 사이에선 장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이다.

최근에는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이란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장성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장성군 황룡강 소재 홍길동테마파크를 방문하면 홍길동과 관련한 자세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홍길동은 소설 속 허구의 주인공이 아닌 조선 연산군 때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연산군일기와 중종실록, 선조실록 등에 홍길동이 등장하며, '중보 해동지적'란 문헌에는 '조선 중엽 이전 홍길동이 장성 아차곡에 살았다'는 기록도 나온다.

이를 근거로 1974년 장성에서 홍길동 생가도 발굴됐다. 장성군은 홍길동 실존 논란이 일자, 전문가를 구성해 홍길동 생가터와 유물 발굴, 현지 확인 등 고증 작업에 나섰고, 실존인물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성군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아치실 마을을 홍길동의 출생지로 추정하고, 아치실 마을 일원에 홍길동테마파크를 조성했다. 홍길동은 15세기 중엽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났고, 차별받던 민중을 규합해 월빈당을 결성한 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실천적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결국 관군에 체포됐으나 탈출해 일본 오키나와로 진출했다. 다만 그의 마지막 행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 실존 인물 홍길동 소재 축제 18번째

장성군은 지난 1998년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첫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올해로 꼭 18번째를 맞았다.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로 성장한 '장성 홍길동 축제'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축제시기를 5월에서 4월로 앞당기고, 여느 때보다 풍성해진 볼거리와 이색 재미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축제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이며, 황룡강 일대와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길동이와 함께하는 황룡강의 봄'을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남녀노소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축제인 '장성 홍길동 축제'는 올해 유채꽃이 만발한 황룡강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험거리가 가득한 홍길동 테마파크 두 곳에서 진행된다.

장성군은 축제장인 황룡강과 홍길동 테마파크 두 곳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해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도 돕는다.

올해 축제에는 총 24개 공연과 38개 체험행사, 8개의 놀이기구, 8개의 전시행사가 진행되며 장성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과 음식점 등이 함께 운영된다.

● 인기가수 공연 & 불꽃놀이 등 화려한 개막식

축제 첫날인 22일 오후 6시 30분 공설운동장에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에는 태진아와 우연이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과 군민노래자랑, 불꽃놀이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오는 24일에는 오후 4시 주무대에서 드라마 '역적'에서 연산군으로 출연중인 인기배우 김지석씨가 직접 축제장을 찾아 팬 사인회를 열고, 드라마 OST 주제를 부른 가수 안예은의 노래 공연도 예정돼 있다.

● 사방천지 노란세상, 황룡강변 유채꽃 만발

이번 축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 중 하나는 황룡강변 '유채꽃'이다. 황룡강변 양쪽을 가득 채운 유채꽃은 이달 말께 만개해 이 일대를 노란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장성군은 관광객에게 '옐로우 시티'에 걸맞은 노란 세상을 선사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 '장성가을노란꽃잔치'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전동열차 등도 운영한다.

군은 또 유채꽃밭에서 문화예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화전과 타일아트, 수채화, 야생화 전시 등 특별한 전시회도 연다.

● 온 가족 즐길 거리 & 체험거리 가득

관광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으로 옐로우 콘서트, 가족음악회, 황룡가든음악회, 유채꽃콘서트, 버스킹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과 매직공연, 홍길동 퍼포먼스 등이 주말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병영체험(전차 탑승 등)과 도예체험장이 설치되고, 축제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산책 탈출게임과 매뚜기잡기 체험, 에어바운스, 워터에어볼, 홍길동 4D 상영관이 운영된다.

홍길동 축제위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황룡강의 봄꽃 축제와 홍길동 테마파크의 청소년축제 등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웠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홍길동 축제가 18번째를 맞이하면서 장성군민과 관광객이 한데 모여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로 성장해 가고 있다"며 "정성껏 마련한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성의 맛과 흥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인 '장성 홍길동 축제'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황룡강 일대와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열린다. <장성군 제공>



올해 홍길동 축제에서는 전동열차를 타고 장성 황룡강변 유채꽃길을 구경할 수 있다.



지난해 장성 홍길동 축제에서 어린이들이 홍길동 복장을 입고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The 18th  
2017 Jangseong  
Hong Gildong  
Festival

기간 2017.4.22.(토) ~ 4.30.(일)/9일간  
장소 황룡강변(공설운동장)/홍길동테마파크

제18회 전남 장성

# 홍길동 축제

주최 Jangseong 주관 장성군 축제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